경찰국 신설 논란에…민주 "경찰 장악 노골화, 폭주 멈춰야"

박홍근 "이상민 장관, 청장 후보군 면접 인사권 빌미 경찰 통제"
황운하 "좌동훈 우상민 통해 검·경 장악 대통령 직할체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례 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은 참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이자 복심으로 꼽히는 이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설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민주화 이후 폐지된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장 인선 후 치안정감을 교체했던 오랜 관행을 뒤집고, 6명 전원을 물갈이했다. 그리고는 독립 외청인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면접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상대로 사실상 면접도 진행했다"면서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경찰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되는 면이 있는데, 행안부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찾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지방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이유는 대통령으로부터 모종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지 않나 한다"면서 "좌동훈 우상민(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란 말이 있다. 이분들을 통해 검·경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야 국회의원-강기정 당선인 18일 예산정책협

지역구·비례 등 11명 참석 '이례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여·야·무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6·1지방선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민주당·정의당 등 특정 정당 중심의 예산정책협의회는 해마다 열렸지만 현직 시장이 아닌 당선인과 여·야 각 정당 현역 국회의원 간 간담회는 흔치 않은 일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9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광주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이 지역 출신 비례의원 등 11명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은희(비례) 의원과 민주당 윤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갑)·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빈(광산갑) 의원이 참석한다.

또 최근 서구을에 사무실을 내고, 이날 개소식을 하는 민주당 김경만(비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한다.

김경만 의원은 현재 서구을 지역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면서 향후 민주당 서구을지역위원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날 협의회 참석 자체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서구을)·민형배(광산을)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3년 국비확보와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1 지방선거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들
"선거운동 일부 허용하라" 헌법소원 제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광주지역 당선인들이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 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75조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이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 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고 해서 선거 관리 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당선인 11명이 참여했다.

후보가 단독 입후보한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 예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호남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국힘, 국회 초청 축하 행사

이준석 "우리가 호남서 제2당"

국민의힘은 13일 지난 6·1지방선거 호남 지역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7명을 국회로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개최된 행사에서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한 호남에서의 제2당"이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어 절대 호남은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소위 말하는 '호남 포기 전략'의 포기"라고 밝혔다.

그는 "호남 주민이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써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다"며 전북·전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을 다짐했다.

특히 광주·대구가 공동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2038 하계 아시안게임과 관련, "김용님 광주시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으로 대구시 의원들과 함께 진행하시라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님 광주시 광역비례의원, 이수진 전북 광역비례의원, 전서현 전남 광역비례의원, 천서영 전북 전주시 기초비례의원, 윤세자 전북 군산시 기초비례의원, 송영자 전북 익산시 기초비례의원, 이세은 전남 순천시 기초비례의원 당선인이 참석했다.

김용님 당선인은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20번 정도 오고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서 제가 27년 만에 광주에서 어느 날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며 "광주도 많이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결과, 호남 광역단체장 3곳 선거에서 일제히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광역의회의 경우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1석, 전남도의회 비례 1석, 전북도의회 비례 1석을 차지하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중개환영. 010-3605-5000